

Readers are Leaders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 고등학생용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CONTENTS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일러두기	<u>03</u>
자기소개	<u>04</u>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u>05</u>
활동 메모	<u>06</u>

01. 신문 스크랩을 통해 디지털 세상 바라보기	<u>08</u>
02.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플랫폼 알아보기	<u>10</u>
0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해보기	<u>12</u>
04. 슬기로운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하기	<u>14</u>
05. 가짜 뉴스 판별하기	<u>16</u>
06. 뉴스 댓글 분석하여 혐오 표현 방지 방안 마련하기	<u>18</u>
07. 비판적으로 뉴스 읽고 댓글로 나의 의사 표현하기	<u>20</u>
08. 뉴스의 타당성 · 공정성 · 적절성 · 이념성 따져보기	<u>22</u>
09.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제시하기	<u>24</u>
10. 디지털 시민이 지킬 준칙으로 미디어 읽기	<u>26</u>
11. 사회적 쟁점을 다룬 유튜브 분석하기	<u>28</u>
12.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숏폼 형식의 공익광고 만들기	<u>30</u>

VISA (확인서)	<u>33</u>
------------	-----------

일러두기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 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5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news 1 KOREA https://www.news1.kr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https://www.sportschosun.com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경북매일 http://www.kbmaeil.com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每日新聞 https://news.imaeil.com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
 울산매일 https://www.iusm.co.kr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amin.co.kr
 全北日報 http://www.jjan.kr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문장 소감	확 인

01. 신문 스크랩을 통해 디지털 세상 바라보기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나 현상을 다룬 신문 스크랩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매일경제 2025년 2월 26일 28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손글씨로 디지털 피로 썩 ... 필사 열풍

혼란스러운 세상에 필사로 정신을 가다듬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서들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디지털 피로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5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필사 관련 출간종수가 작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2년 61권, 2023년 57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82권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25권(2월 16일 기준)이 출간됐다. 특히 2030세대가 필사 유행을 이끌고 있다. 연령별로 올해 필사 관련 책을 구입한 비중을 보면 20·30대가 52.1%를 차지했다. 20대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 작년 8.8%에서 올해 21.3%로 증가했다. 30대 비중은 작년 28.6%에서 올해 30.8%로 소폭 증가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필사 열풍 이유는 우선 훌륭한 문장을 베끼면 글쓰기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문장력·어휘력이 요구된다. 베스트셀러인 필사책 제목만 봐도 이 같은 수요가 읽힌다.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왼

쪽 장에 박완서, 김애란부터 헤르만 헤세, 알랭 드 보통까지 국내외 문학인들의 다양한 글을 싣고, 오른쪽 장은 빈 공간으로 편집된다. 필사할 때 책이 잘 펼쳐지도록 사철 제본되거나 필기감 좋은 모조지로 구성된다. 아날로그적 행위인 필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조용히 한 글자씩 쓰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단단해진다. 필사노트를 따로 장만해 여기저기서 내 마음에 외닿는 문장들을 수집한 경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봤을 때 당시 나의 감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2030세대, 특히 20대가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필사를 한다"며 "손글씨로 문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도 이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필사 책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문학작품의 필사를 넘어서 최근에는 헌법, 가사, 힐링 문장 필사집까지 출간되고 있다. 최근 정세와 맞물린 '헌법 필사'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필사책'은 민주주의·정치·인권·시민의식·주체적 삶의 가치를 다룬 글귀와 명언을 담고 있다. 필사하면서 민주주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을 수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가사 필사집도 인기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을 직접 따라 쓰며 그 의미를 곱씹는다. '아이유 가사 필사집'에는 아이유의 노래 63곡, 'DAY6 가사 필사집'에는 DAY6의 노래 97곡이 수록돼 있다.

책 속 QR코드를 통해 노래를 들으며 필사할 수 있다. '김광석 노래 필사하기'와 '태연 가사 필사집'도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독자의 마음을 다독였던 책을 필사 노트 버전으로 재출간한 경우도 있다.

법륜 스님의 문장을 모은 '지금 이대로 좋다 필사 노트'와 심리상담사인 고은지 저자가 쓴 '오늘도 잘 살았네' 속 문장들을 직접 적어보는 필사 에디션이 잘 팔리고 있다. 이 책들은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며 긍정 확언을 통한 정서력 증진을 강조한다.



박윤예 기자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사 열풍이 부는 이유를 '디지털 피로'와 연계하여 설명해 보세요.

기사에서 언급한 '디지털 피로'에 대해 설명한 후 주요 원인을 찾아보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디지털 피로	
디지털 피로의 발생원인	①
	②
해소 방안	①
	②

💡 디지털 사회에 관한 책이나 신문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필사한 후 그 구절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출처	
원문 필사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	

📰 디지털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몇 가지 활동을 해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 기사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기사에서 말하는 디지털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02.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플랫폼 알아보기



인공지능(AI)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그에 따른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세계일보 2025년 2월 4일 8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교육도 AI가 대세”... 학습 넘어 교사·학생 간 거리 좁힌다 [심층기획-에듀테크 박람회 벅쇼 르포]

지난달 22~24일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박람회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벅쇼)'는 AI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다가왔고,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현장에서 만난 에듀테크 기업과 전문가들은 “교실에서의 AI 활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I는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면서도 “혁신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육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AI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돕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도구’란 것이다.

◆ 에듀테크 업체들 “교육도 AI가 대세”
올해로 개최 40주년을 맞은 벅쇼는 매년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교육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토론 등도 열리는 교육계의 주요 행사다.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이끈다(Learning Today, Leading Tomorrow)’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에는 전 세계 600여개 기업이 부스를 차린 가운데 130여개국에서 3만5000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축구장 5배 크기인 3만1500㎡ 규모의 전시장에 빼곡히 들어선 부스와 수많은 관람객은 ‘교육계의 CES(세계 최대 IT 전

사회)’란 수식어를 실감케 했다. 전시장은 칠판 등 대형 장비부터 수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까지 교육 관련 기술이 총망라된 모습이었다. ‘학습’을 넘어 ‘정서, 창의성’에 방점이 찍힌 기술도 많았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은 어린이들에게 역할놀이 등을 통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관련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도구나 플랫폼을 조사한 뒤에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디지털 도구나 플랫폼	특징
①	
②	
③	

*에듀테크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조합하여 만든 용어로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의미함.

0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최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이를 관리하여 디지털 기술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주체적인 역량을 길러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동아일보 2025년 3월 6일 2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 코드 참고

심각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건강한 사용 환경 중요

●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3년 새 1.8배 증가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8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은 하루 평균 5시간 40분동안 인터넷을 사용했다. 2019년 2시간 40분에서 크게 늘었다.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메신저를 수시로 이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97.4%), 포털 사이트(97.3%), 메신저(95.8%)를 많이 이용한다”며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메신저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2019년과 비교할 때 10%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용률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게임(24.3%), 미디어(17.4%), 메신저(10.3%), SNS(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기 뇌 계속 발달, 과도한 게임은 악영향”

뇌는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2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 후두엽(시각정보 처리)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두엽(고차원 사고, 자기 조절)으로 확산된다.

전두엽은 25세까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자기 조절이나 충동 조절, 계획적 사고 능력 등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는다. 또 청소년기는 도파민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래 집단에서 자신들의 의견 등이 수용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원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는 중독에 매우 취약한 시기다. 게임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중독, 성인이 된 뒤에도 이어져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고 기업이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 게임업체와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은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 등을 통해 후원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 심리적인 취약성을 이용해 보상심리를 자극하거나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스마트폰 과의존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세요.

일상	
신체	
정서	

📱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과 관련된 용어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팝콘 브레인	
두뇌 유출	
우뇌 증후군	
공존 질환	

📊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황을 진단해 보세요. (고위험군: 31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 23점~30점)

〈청소년, 성인, 고령층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요인	세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절실패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현저성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제적 결과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출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연번	실천 계획
①	
②	
③	
④	
⑤	

04. 즐거운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의 정보 활용 역량 못지않게, 타인의 정보와 창작물을 보호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소양 의식이 중요해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저작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뒤에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스크랩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다음은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 112'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	답변
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② 교재를 구입해서 태블릿 PC에 저장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③ 수행평가 발표를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④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⑤ 영화나 드라마의 감상평을 작성하여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참고 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 112 (<https://copy112.kcopa.or.kr/>)

🌀 다음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만들어 보세요.

구분	내용
개념 및 종류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발췌
행동 수칙	①
	②
	③
	④
	⑤

🌀 OpenAI DALL·E 3,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의 AI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나 디지털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나 디지털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 붙이는 곳

05. 가짜 뉴스 판별하기



각종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 ‘가짜 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가려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출처: 머니투데이 2025년 3월 11일 25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왜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될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돼 구별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사실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정확한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입장에 따라 잣대를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가짜 뉴스 논란은 메시지의 진실과 허위 여부보다는 대부분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정 언론사 보도는 무조건 가짜 뉴스고, 즐겨 보는 유튜버가 말하면 100% 진짜 뉴스인 격이다. 종종 정보가 부족해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통되는 루머(rumor)와 혼용되기도 한다.

구글을 비롯한 9개 기관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해’ 설립한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First Draft News)’는 가짜 뉴스를 연구, 분석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가짜 뉴스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이들 유형은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남들이 속을 수 있는 ‘풍자나 패러디’, 사진이나 헤드라인이 본문 내용과 다른 ‘거짓 연결’, 정보를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오도’,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정보를 함께 섞어 놓는 ‘거짓 맥락’, 가짜 출처를 제공하는 ‘사칭’, 딥페이크와 같이 합성이나 수정을 통한 ‘조작’,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00% 속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조작’ 등이다. 또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도 잠재적 가짜 뉴스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편식하며 살고 있다. 웹 사이트 등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로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증편향’이 강화되면서, 해당무제한 음모론도 더욱 굳건하게 진실로 믿는 것이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만 제공되면 판단력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동시에 여러 정

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인지 과부하나 시간제한 등 환경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대부분 판단 실수를 한다고 설명했다.

듀크대 행동경제학과 댄 애리얼리 교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것을 쉽게 믿게 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진다는 이유로 가짜 뉴스를 믿는다는 것이다. 자기 앞에 놓인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비난의 대상을 찾아 위안을 얻는다. 이때 진실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가짜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빅테크들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들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시된 기사에서는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입맛에 맞는 뉴스’나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뉴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가 분류한 가짜 뉴스의 7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가짜 뉴스 유형	설명
1.	
2.	
3.	
4.	
5.	
6.	
7.	

📖 다음 내용은 『나와 가짜 뉴스』의 저자 네레이다 카리요가 제시한 '가짜 뉴스 검증 방법'인 '판테라(PANTERA)'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떠도는 뉴스를 찾아 정리한 후, 판테라 기준에 따라 가짜 뉴스 여부를 검증해보세요.

가짜 뉴스의 검증 방법 ‘PANTERA’

① 출처(Procedencia)의 P

정보의 출처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한 전문가의 의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② 책임(Autoria)의 A

해당 글이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에 실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풍자 매체나 떠도는 소문만을 전하는 미디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③ 보도 가치(Novedad)의 N

이미 오래된 자료 혹은 오류가 있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뉴스는 가치가 없다.

④ 어조(Tono)의 T

글의 어조와 언어를 관찰해야 한다. 감정적인 언어, 맞춤법 오류가 난무하다면 가짜 뉴스를 의심할 수 있다.

⑤ 근거(Evidencia)의 E

정보에 대한 근거를 누차 확인하여 뉴스를 판단해야 한다.

⑥ 반론(Riplica)의 R

반론의 여지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된다면, 혼자 검증하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좋다.

⑦ 확장(Amplia)의 A

뉴스의 전체 맥락을 살피며, 화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뉴스인

플랫폼	유튜브, 엑스(X), 네이버 블로그, 메타, 카카오톡, 기타()
제목	
뉴스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교육, 국제, 스포츠, 연예, 기타()
뉴스 요약	
PANTERA 분석하여 정리하기	

06. 뉴스 댓글 분석하여 혐오 표현 방지 방안 마련하기



독자들은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며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합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이러한 댓글을 분석해 기사에 반영하기도 하며, 이는 독자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혐오 댓글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소통을 해칩니다. 댓글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뉴스와 댓글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다음 기사를 잘 읽고 몇 가지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매일경제 2025년 3월 14일 2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댓글의 시대

댓글은 매력적이다. 독자를 작가로 바꾸고, 팬을 배우로 바꾸고, 듣는 백성을 말하는 시민으로 바꾼다.

댓글은 인간을 자유롭고 용기 있게 말하는 존재, 즉 지배되는 객체에서 통치하는 주체로 바꾼다. 하찮은 무명인을 광장에서 의견을 펼치고 목소리를 떨치는 유명인으로 변화시킨다.

댓글은 한 방향 소통에 익숙했던 정치의 구조를 바꾸고, 행정의 작동을 흔들며, 기업의 행태를 달라지게 한다. 듣기만 했던 자가 말하고, 읽기만 했던 자가 쓰고, 소비만 했던 자가 대화하자고 하자, 작가는 귀를 열고, 기업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댓글은 '작가는 독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텅 빈 약속을 꽉 찬 현실로 바꾸었다. 작가와 소통하고 다른 독자와 이야기 나누면서 독자는 작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었다. 이 새로운 독자들은 매우 사나운 존재다. 상당히 예민하고,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한 행태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공격은 더 과격하고 부

정적인 성향을 띤다. 공격받는 이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기에 수위 조절이 어려운 까닭이다.

또 댓글의 흐름엔 편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첫 댓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안은 여러 집단의 갈등이 뒤얽힌 데다, 법적 쟁점들이 집약되어 웬만한 문해력 없이는 사실과 의견, 맥락과 의미를 분별해 읽기 힘들다.

이럴 때 첫 댓글이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본문은 길고 복잡하고 모호한데, 댓글은 짧고 단순하고 명료해서다. 이 때문에 첫 댓글의 평가가 게시판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은 첫 댓글 선점의 경쟁이고 대중 감정의 방한타를 누가 손에 쥐느냐의 전쟁이 되곤 한다. 이는 지금이 위험하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진실에 대한 관심 없이 집단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고 사회의 앞길이 정해지는 현상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에 대한 경멸이 다른 의견에 대한 비관용과 결합하고, 정치가 음모와 감정

에 감염되면, 전체주의가 얼굴을 드러낸다. 이런 세상에선 사실과 논리로 무장한, 공감과 연대로 공동체를 이끌려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억지를 거듭하고 음모를 뿌리면서 끈질기게 개소리를 늘어놓는 자, 파렴치하고 뻔뻔해서 타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이들은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돌려쓰면서 짧고 강렬한 욕설을 거듭 늘어놓아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정신을 무너뜨린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악플 공격에 노출된 사람은 좀처럼 버티지 못하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에 이르곤 한다.

댓글 조작자들은 댓글의 편향성을 이용해서 대중 심리를 조작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여론을 왜곡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나라는 점차 약해진다.

넘치는 댓글에서 관심을 거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고, 공공성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길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장은수 문학평론가

제시된 기사를 읽고 댓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해 보세요.

댓글의 순기능	댓글의 역기능

💡 제시된 기사에서는 뉴스의 내용과 동떨어진 댓글이 달리는 이유와 댓글 내용이 점차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뉴스의 내용과 동떨어진 댓글이 달리는 이유	
댓글 내용이 점차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이유	

💡 제시된 기사의 밑줄 그은 부분을 잘 읽고 ‘댓글에 선동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보세요. 칼럼에는 아래 제시된 한나 아렌트의 문장을 반드시 인용해 주세요.

“전체주의 지배에서 이상적인 신하(臣下)는 골수 나치와 골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의 차이와 참과 거짓의 차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19, 281쪽

📰 최근 발행된 종이 신문에 게재된 사설과 칼럼 중 글쓴이의 주장이 선명한 내용을 골라 스크랩한 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댓글의 순기능’을 잘 살린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나의 댓글:

07. 비판적으로 뉴스 읽고 댓글로 나의 의사 표현하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한 뉴스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종종 엄밀한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고, 나의 판단을 댓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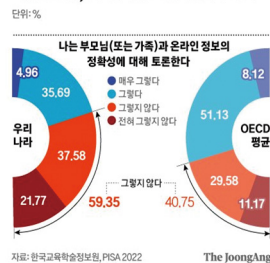
다음 기사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중앙일보 2024년 12월 19일 1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유튜브 가짜 뉴스 많은데... 학생 절반, 온라인정보 그대로 믿어

A씨는 요즘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잘못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게 가장 걱정이다. 그는 “아이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며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은 좋지만, 편향적 사고가 생길

학생 60%, 온라인정보 정확성 안 따져



나라보다 온라인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최근 공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

는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은 50.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PISA는 만 15세 이상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고자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주로 읽기·수학·과학 영역을 평가하는데, 2022년 평가에선 이와 별개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했다. OECD 국가 29개국 29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선 중3 이상 6454명의 학생이 질문에 응했다.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비교하거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한국 학생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온라인 정보를 검색할 때 다른 출처와 비교한다’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은 64%로 OECD 국가 학생들 평균(71.9%)보다 약 8%포인트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족·친구·학교에서 토론하는 빈도도 낮았다.

OECD 국가 학생들은 60%가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친구 또는 부모님과 토론한다고 답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40%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서정희 KERIS 연구위원은 “디지털 활용도나 능력은 많이 올라왔지만, 비판적 사고력이나 온라인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은 아직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빈도는 더 잦았다. ‘자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4.5%, ‘불쾌하거나 저속한 문자, 동영상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5.5%에 그쳐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서 위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감정 조절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한국 학생들의 온라인정보 활용 능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문제점

해결방법

💡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청소년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세요.

연번	청소년 행동 강령
1	
2	
3	
4	
5	

📰 신문에서 사실 또는 칼럼을 스크랩한 후, 주장과 근거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자신이 만든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기사 내용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아 댓글을 작성해봅시다.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검증 내용	
나의 댓글	

08. 뉴스의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이념성 파져보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뉴스는 특정한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스 시대에는 뉴스의 내용과 제작 목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뉴스 검증 기준을 알아보고, 뉴스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조선일보 2025년 3월 20일 16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타잔 같아요”... 라틴계 배우 기욤 ‘백설공주’ 논란 속 개봉

백설공주가 베일을 벗었다. “눈처럼 하얀 피부”라는 원작의 설정은 “거친 눈보라를 뚫고 태어난 아이”로 바뀌었다. 주연인 레이철 지글러는 피부색은 차치하더라도 짙은 눈썹, 각진 얼굴, 이를 악물고 아래턱을 내밀며 연기하는 습관 때문에 초반부터 역세고 강인해 보인다. 원작의 동글동글하고 해맑은 백설공주와는 판판이다. 지글러는 “가장 중요한 건 백설공주가 의지 있고 강인한 인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그게 목표였다면, 성공이다. 공주가 물에 빠졌다가 해엄쳐 나오는 장면이나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에선 정글을 누비는 타잔까지 떠오른다.

원작에서 백설공주는 우물가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소원을 빈다. 2025년 공주의 소원은 담대하고 용감해져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 왕자는 사라졌고, 여왕에게 맞서는 도적단의 대장과 사랑에 빠진다. 백설공주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각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해석은

필요하지만, 모든 공주가 진취적이고 용감한 영웅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주연인 지글러는 과거 인터뷰에서 원작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고 해 원작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서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법 거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묻는 여왕의 질문에 “백설공주는 마음 속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며 동문서답하고, 여왕은 “내면의 아름다움 따윈 쓸모없다”고 노래하면서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영화 ‘원더우먼’으로 잘 알려진 배우 갈 가도트만큼은 사악한 여왕 역을 맡아 원작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준다. 길이 6m 넘는 망토에 400여 개의 보석을 휘감고 나와 위협하지만 매혹적인 악역으로 변신했다.

영화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를 강조하면서 정작 일곱 난쟁이는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CG)으로 만들어내면서 또 한 번 논

란을 빚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왜소증 배우의 일감을 뺏었다는 것. 개봉에 맞춰 수백 명의 왜소증 배우가 디즈니 스튜디오 앞에서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일의 썸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만든 마크 웹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숲속의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역동적인 연출로 눈이 즐거운 장면도 더러 있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영화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알라딘’ ‘라라랜드’ 등에 참여한 저스틴 폴과 벤지 파섹 작곡가 듀오가 음악을 맡아 재치 있는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레이철 지글러는 스티븐 스피버그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스타. 깨끗하고 청아한 음색과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노래만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백수진 기자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분석해 보세요.

분석 기준		기사 내용 분석
타당성	메시지가 보편적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지,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다뤄졌는지 평가	
공정성	관점이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	
적절성	사용된 자료가 기자의 주장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기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는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지 평가	
이념성	기자의 의도가 타당한지, 시대와 사회의 이념 등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한지 평가	

💡 아래 제시된 토론의 마지막 말풍선에 자신의 생각을 채워보세요.

학생1: 영화 '백설공주'는 원작의 내용을 무시했어. '눈처럼 하얀 아이'인 백설공주 역할에 타잔을 닮은 라틴계 배우를 캐스팅한 건 잘못이야. 그리고 '누가 가장 아름답냐'는 왕비의 질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마법 거울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 원작의 팬들이 분노할만한 일이야.

학생2: 작품에는 시대상이 담기게 마련이야. 2025년에 탄생한 백설공주가 1812년 원작과 같을 수는 없어. 백설공주 이름의 의미를 '눈보라를 뚫고 태어난 아이'로 재해석한 것도, 아름다움의 의미를 외모에서 내면으로 확장한 것도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야. 난 오히려 주연을 맡은 라틴계 배우의 얼굴을 '타잔' 같다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어.

내 생각은 _____

💡 마크 웹 감독의 영화 '백설공주'를 시청한 후, 제시된 기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독자 투고를 작성해 봅시다.



*독자 투고: 독자가 신문·잡지·인터넷 사이트 등에 실어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 또는 그런 원고를 말함.

09.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제시하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괴롭힘, 명예훼손, 따돌림,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인터넷 윤리를 배우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이버 폭력 대응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서울경제 2025년 1월 1일 19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딥페이크 성범죄도 학폭"...피해 학생 보호 강화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성범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의 범주로 명시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 학생 보호

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재윤 기자

 딥페이크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영상이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해 보세요.

- ①
- ②
- ③

 사이버 폭력 대응에 관한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의미 및 대응책을 정리해 봅시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	의미	대응책
사이버 괴롭힘 (Cyberbullying)	모욕적인 댓글, 비방글 작성 등을 통해 특정인을 오랫동안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증거를 저장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린다.
사이버 명예훼손 (Defamation)		
사이버 스토킹 (Cyberstalking)		
사이버 성폭력 (Cyber Sexual Harassment)		
사이버 따돌림 (Online Exclusion)		
사칭 및 계정 해킹 (Impersonation & Hacking)		
도배 및 스팸 (Spamming & Flaming)		

 사이버 폭력을 당한 친구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 ①
- ②
- ③

10. 디지털 시민이 지킬 준칙으로 미디어 읽기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려면, 타인을 존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활용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규범과 윤리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 디지털 범죄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뒤, 디지털 시민이 지켜야 할 준칙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봅시다. 답변할 때는 반드시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디지털 시민이 지킬 준칙(질문)	답변
①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② 사실에 견해나 주장이 섞여 있는가?	
③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④ 헤드라인에 감정, 의견, 추정 등 주관적 표현이나 단어가 있는가?	
⑤ 특정 세력 또는 집단의 견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가?	

 자신이 관심 있게 본 유튜브를 디지털 시민이 지켜야 할 준칙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답변할 때는 이유나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제목			
콘텐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교육, 국제, 스포츠, 여행, 군사, 기타()		
상영 시간 (running time)	업로드 일자	시청 일자	
섬네일 그리기			

디지털 시민이 지킬 준칙(질문)	답변
①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② 사실에 견해나 주장이 섞여 있는가?	
③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④ 섬네일에 감정, 의견, 추정 등 주관적 표현이나 단어가 있는가?	
⑤ 특정 세력 또는 집단의 견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가?	

11. 사회적 쟁점을 다룬 유튜브 분석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어떤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지, 편향은 없는지, 사실 여부는 검증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사회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능력을 키워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에 앞서 우리 사회의 쟁점 중의 하나인 가짜 뉴스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몇 가지 활동을 해봅시다.

※ ※출처: 매일경제 2025년 3월 25일 2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 ... 징역 최대 15년 추진

고동진 의원,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고(故) 김새론 씨 유족이 생전에 김씨가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차별적 폭로전은 사자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쓰앙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일삼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의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스스로 예방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처벌 강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측에 콘텐츠 삭제 요구 권한도 마련

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고 의원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

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 등에게 상응하는 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그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처음 제출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4252건으로 2019년에 비해 75% 증가했다.

사이버레커는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레커차에 빗댄 표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명예훼손을 일삼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최희석 기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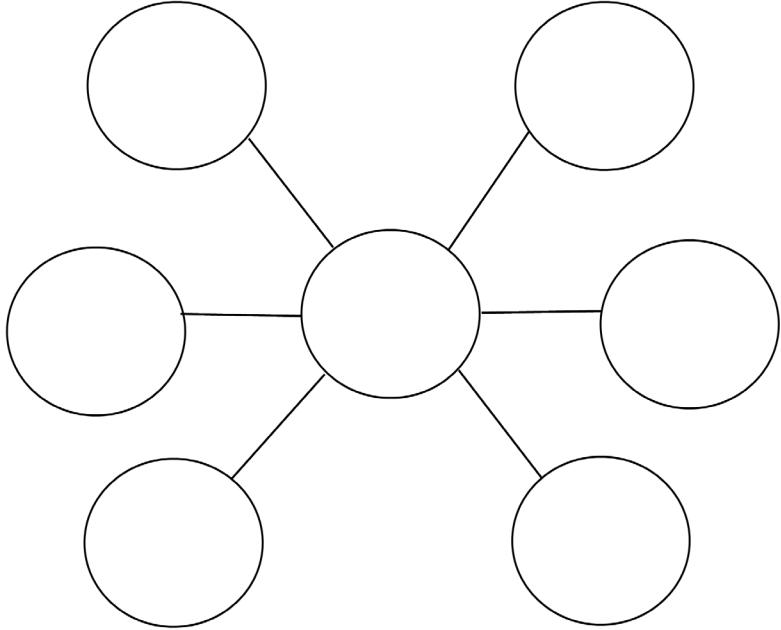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 ①
- ②
- ③

 자신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 대응책을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 ①
- ②
- ③

 사회적 쟁점을 다룬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제목			
콘텐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교육, 국제, 스포츠, 여행, 군사, 기타()		
상영 시간 (running time)	업로드 일자	시청 일자	
유튜브의 주요 내용을 버블맵 (bubble map) 으로 정리하기			
버블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분석하기			
유튜브의 주요 내용 분석에 따른 평가와 이유	평가		
	이유		
자기평가 [목적의식]	A	B	C
	☐ 유튜브 분석 평가 활동을 통해 내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 유튜브 분석 평가 활동을 통해 내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 유튜브 분석 평가 활동을 통해 내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 유튜브를 보고 버블맵을 정리할 때는 정중앙의 동그라미에는 주제를 쓰고, 바깥쪽의 6개 동그라미에는 시간대별로 주요 내용의 핵심어를 정리하면 됩니다.

12.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슷폼 형식의 공익광고 만들기



짧고 강렬한 슷폼 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디지털 시민이 알아야 할 가짜 뉴스, 사이버 폭력, 유튜브 알고리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몇 가지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매일경제 2025년 3월 18일 2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가짜뉴스 음모론에 멍드는 전세계...신문은 AI에 대항하는 기동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日 언론과의 대담서 신문역할 강조

“사실과 거짓을 판별해 신뢰할 만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은 인공지능(AI)에 대항하는 기동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저명한 역사학인 유발 하라리가 AI 시대에 신문의 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진행된 하라리와 야마구치 시카즈 요미우리신문 사장의 대담 보도했다. 하라리는 지난해 10월 출간한 책 ‘네서스’ 홍보를 위해 최근 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돌며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네서스’는 정보의 역사와 속성에 한 내용을 다루면서 AI의 위험성을 고하는 책이다. AI가 다른 기술과

달리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전에 없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거시적 안목에서 조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죽음기는 음악을 재생했지만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다. 현미경은 세포의 비밀을 보여줬지만 신약을 합성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고 과학적 발견을 하는 행위자라는 것이 하라리의 시각이다. 특히 앞으로 수십 년 내에 AI가 유전 코드를 작성해 새로운 생명의 형태를 창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담에서도 하라리는 “AI를 인간의 도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AI는 지구에 처음 출현한 비생



AI 알고리즘 문제 갈수록 심각
음모론 확산·정치 편향 부추겨

인간이 직접 만드는 종이 신문
신뢰성 높은 정보만 추려 제공

물 행위자’라며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은행 용자의 가부를 판단하거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

투에서 이스라엘에 공격 표적을 제시한 사례 등을 들며 “행정이나 기업 등 활동에서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민주주의에 매우 위협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그 처음은 17세기에 등장한 신문이었다”며 “신문이 진위를 판별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알고리즘 문제도 제기했다. 정보의 편향성을 일으키고 음모론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SNS의 뉴스를 편집하고 있는 것은 알고리즘”이라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은 SNS 이용자 수 확대에만 신경 쓰고 게이트키퍼(문지

기)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SNS가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신문으로부터 빼앗고 있다”며 “인간이 편집하는 신문은 알고리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라리는 AI의 위협을 줄이는 방법으로 SNS 기업에 자사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AI를 감시해 실태를 공표하는 국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 사회가 AI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AI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기사 속에 있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용 어	의 미
가짜 뉴스	
음모론	
정치 편향	
알고리즘	
게이트키퍼	

AI 시대에 신문 읽기가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 ①
- ②

 디지털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가짜 뉴스, 사이버 폭력, 유튜브 알고리즘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숏폼 형식의 공익광고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절차	주요 내용		
주제 설정			
목표 설정			
대상 설정			
형식*			
스토리보드 작성 (문제 제시, 해결책 제안, 행동 유도 순서로 정리)			
메시지 문구			
섬네일 디자인			
촬영 계획	① ② ③ ④		
업로드 채널**			

* '형식' 칸에는 상황극, 애니메이션, 인터뷰, 인포그래픽, 챌린지 등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면 됩니다.

** '업로드 채널' 칸에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등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면 됩니다.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발 행 일 | 2025년 6월 10일
지 은 이 | 권영부 전 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영민 명덕고등학교 교감
박형수 중앙일보 편집국 부장
발 행 인 | 임채청
편 집 인 | 정우현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 화 | 02-733-2251~2
팩 스 | 02-720-3291
홈 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 최 | 한국신문협회
한국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